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누적 관람객 16만 명, 성황리에 폐막



-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사전프로그램과 본 행사 누적 관람객 약 16만 명 기록, 성황리에 폐막
- 역대 최초 공모를 통해 초대된 레이첼 레이크스 예술감독, 동시대의 이주, 디아스포라, 자원 채굴과 관련한 긴급한 사안을 마주하고 재현하는 시도, 과장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사려 깊은 작품들 소개
-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관람객 만족도 조사’ 참여한 1002명 응답자 80% 이상이 ‘만족’, 외국인 관람객이 눈에 띄게 증가
- 작품과 작가 정보를 수록한 컬러판 안내 책자(232쪽) 무료로 제공하여 관람객의 전시 이해를 돕고, 비엔날레 주제를 심화 연구하는 선집(384쪽)을 사전 출판, 그 외 소식지, 지도와 엽서 등 다양한 출판물에 호평

-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립미술관(관장 최은주)이 주최한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THIS TOO, IS A MAP)》가 누적 관람객 수 약 16만 명(158,431명)을 기록하며 폐막을 알렸다.
- 2022년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프리비엔날레) 《정거장》(‘22.7.21.~10.3.)과 《테라인포밍》(‘22.12.10.~12.11.)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2023년 9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을 포함한 6곳의 전시 장소와 14곳의 협력 공간에서 《이것 역시 지도(THIS TOO, IS A MAP)》를 성료하였다.
- 작년 9월 역대 최초로 열린 국제 예술감독 공모를 통해 선임된 레이첼 레이크스(Rachael Rakes)는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THIS TOO, IS A MAP)》에서 이주, 디아스포라, 자원 채굴 등 동시대의 긴급한 현안들을 마주하고 재현하는 시도를 보였으며, 전시의 주제에 맞는 다양한 국적 작가들의 신작을 포함한 작품들을 과잉된 연출 없이 절제되고 견고하게 직조된 방식으로 전시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반복적이고 전형적인 기존 비엔날레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관람객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다.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비엔날레를 ‘만족’한다는 응답이 80.4%로 집계되었다.
 - 1,002명의 응답자의 참여로 진행된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20~40대 젊은 관람객의 전시장 방문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관람객 중 63.2%가 여성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20대(36.6%), 직업은 회사원(40.7%)과 대학(원)생

(22.7%)이 가장 많았다. 나아가, 재참여와 타인 추천 의향, 지역에 필요한 행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74.5점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디어’의 넓은 정의를 확장하는 이번 비엔날레의 방법론이 MZ세대와 소통에 성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 이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서울아트위크 기간 동안 개최된 사전행사(9.4.)를 시작으로, 전시 개막(9.20.)부터 진행된 토크, 워크숍, 퍼포먼스, 라이브 이벤트, 팟캐스트, 스크리닝 등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행사들은 비엔날레 주제와 밀접하면서도, 실질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운영, 비엔날레 관람과 경험의 깊이를 더했다.

○ 이재이 작가의 <애리조나 카우보이(as part of Far West, So Close)>(2023)는 한국에 거주하며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는 외국인들의 임시 합창단이 부르는 한국 가요로, 전시장에서 예고 없이 들려오는 친숙하면서 이질적인 선율로 관람객의 주목을 받았다. 프로그램 자문 응조린이 기획한 라이브 행사 <비무장 여신>은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배경으로 다양한 관계 맺기의 대안적 개념을 다루는 행사였으며, 2022년 사전프로그램에 이어 진행된 안테스 작가의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로 춤추라>, 마당에 설치된 작품과 유사한 형태의 임시 조각을 관객이 직접 만들어보는 이끼바위쿠르르의 <땅탑 워크숍> 등 현장 참여형 워크숍이 다양하게 운영되었다. 또한, 서소문 본관 3층 프로젝트 갤러리에서는 동시대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보는 ‘엽서 그리기 프로그램’이 열려, 여러 관람객의 참여를 끌어냈다.

□ 안내 책자(가이드북), 선집(도록), 엽서와 지도 등 다양한 형태로 마련된 비엔날레 출판물은 80%~90%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전시 출품작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해설을 제공하는 컬러판 안내 책자를 무료로 제공하며, 전문가와 일반 관람객 모

든 층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

- 서울시립미술관과 [네임]출판사가 공동으로 출판한 비엔날레 도록 『이것 역시 지도』는 탈신식민주의와 언어, 이주와 디아스포라의 서사, 자원 채굴과 글로벌 산업 네트워크, 유동적인 정체성, 미래주의에 관한 여성주의적 독해 등 비엔날레의 주제를 심화하는 연구서적으로, 다공적이고 다중적인 역사와 지식을 모델링하며, 이번 비엔날레를 더욱 풍성하게 읽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다는 평이다.
-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1,002명의 응답자 중 국내 및 해외 거주 외국인인 12.3%로 기록되며, 외국인 관람객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지난 9월 서울아트워크 기간에 맞춰 사전 행사와 사전 관람을 운영하고, 서울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마이크로 외국인 인플루언서인 ‘글로벌 서울메이트(GSM)’와 협력하는 등 외국인 관람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다.
-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 대한 외신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이번 비엔날레 전시는 아트 리뷰 아시아(Art Review Asia), 이플럭스 비평(e-flux criticism), 호주 아트 링크(Artlink Australia), 프리즈(Frieze) 등 다수의 해외 유력 매체에서 보도되었다.
 - 해외 미술 전문 매체 이플럭스 비평 부분(e-flux criticism)에서 소개된 제이슨 와이트(Jason Waite)는 비평문에서 이번 비엔날레가 “미디어를 재료 중심으로 접근한 감독의 창의적인 해석이 돋보인다” 라고 호평했다. 또 아트 리뷰 아시아(ArtReview Asia)의 오펠리아 라이(Ophelia Lai)는 “과장되고 피로하게 관객을 압도하는 반복적이고 한정적인 여타 전시와는 달리, 깊이 성찰할 수 있도록 사려 깊게 기획된 전시이며, 인내심 있는 관객들에게는 선물과도 같다” 라고 평했다.

□ 2023 SeMA-HANA 미디어아트상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작가 프랑소와 노체(Francois Knoetze)가 수상했다. 프랑소와 노체는 조각, 비디오,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폐기물, 소비와 물질문화에 관한 학제 간 연구를 기반으로 한 작품과 활동을 만들어 온 현대미술가이다.

□ 한편, 중구 만리재로 215에 위치한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서는 《이것 역시 지도》 출품작 3점이 12월 19일까지 상영된다. 제12회 서울 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미처 관람하지 못했다면 서울의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일상의 공간에서 전시장 제약을 넘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 방문하기를 추천한다.

□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를 관람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도시와 미디어에 대한 개념적 사유로 시작해서 동시대 미술의 실험적인 담론을 꾸준히 형성해 온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다음 회차에서도 참신한 주제와 비엔날레만의 정체성으로 관람객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홈페이지 <https://sema.seoul.go.kr/>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ulmuseumofart](https://www.instagram.com/seoulmuseumofart)

트위터: twitter.com/SeoulSema

페이스북: [facebook.com/seoulmuseumofart](https://www.facebook.com/seoulmuseumofart)

유튜브: [youtube.com/seoulmuseumofart](https://www.youtube.com/seoulmuseumofart)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Seoul Mediacity Biennale

-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주최하고 운영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지난 27년간 미디어로 상징되는 미술의 동시대성과 실험성을 주목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서울시의 주요한 현대미술 행사다. 1996년부터 세 번 개최되었던 《도시와 영상》 전시에서 서울과 미디어에 대한 실험을 나누기 시작했고, 이후 2년마다 열리는 비엔날레 형식으로 시대를 대변하는 다양한 생각과 활동을 담아왔다.
-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비엔날레 홈페이지 mediacityseoul.kr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ulmediacitybiennale
트위터	twitter.com/@mediacityseoul
페이스북	facebook.com/mediacityseoul
유튜브	youtube.com/@SeoulMediacityBiennale

주요 이미지

※ 이미지를 사용할 때 정확한 크레딧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지	크레딧
	<p>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개막식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3년 9월 20일.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p>
	<p>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전시장 투어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3년 9월 20일.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p>



안데스,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로 춤추라>, 워크숍. 협업: 고주혜 스트리트댄서 & 박성준 지질학자.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행사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프로젝트 갤러리, 2023년 10월 08일.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이것 역시 지도』 선집(도록), 서울시립미술관, 2023. 디자인: 배소현.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사전 행사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3년 9월 4일.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프랑소와 노체, <코어 덤프>, 2018-2019.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3.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 SeMA-하나 미디어아트상 수상작



라야 마틴, <아르스 콜로니아>, 2011.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전시 전경, 서울로미디어캔버스, 2023년 09월 21일 ~ 12월 19일.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기본 정보

- 담당자: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프로젝트 디렉터 권진
(02-2124-8975/ nakwonjin@seoul.go.kr)
- 홍보 문의: 고객홍보과장 봉만권(02-2124-8912/ go1107@seoul.go.kr)
학예연구소 김채하(02-2124-8928/ chaeha@seoul.go.kr)

이미지 다운로드 방법

- 서울시립미술관 웹하드
 - 주소: <http://sema.webhard.co.kr>
 - 아이디: semapress
 - 비밀번호: sema
- 이미지 다운로드([내리기전용] 폴더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폴더
→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누적 관람객 16만 명\]](#) 폴더)